



### 남원 4H 연합회, 청년농업인 식목행사 진행

남원시 4H연합회(회장 권태경)는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일, 남원시 이백면에서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산초나무를 식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참가자들은 각 나무에 자신의 소망을 담은 이름표를 걸어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식재된 농장은 4H 회원이 운영하는 양봉 농장으로, 산초나무가 꿀벌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산초나무는 개화 시기가 길고 향이 강한 꽃을 피워 벌들의 활발한 활동을 돕는다.

이는 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양봉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초 열매는 향신료와 한약재로 활용,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4H연합회는 이번 식재 사업을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회원들은 산초나무의 생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배 기술을 연구해 창출된 수익을 다시 연합회의 발전과 청년농업인 지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죽향동, 헤어미용 전문기술 지원 사업 추진

남원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미래직업전문학(대표 윤민정)과 업무협약 맺고,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자립 향상을 위한 헤어미용 전문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화를 위한 헤어미용 전문기술 지원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양 기관은 4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사업 시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죽향동 맞춤형복지팀(063-620-47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 만경읍 내수면어업계, 능제저수지 수변 환경정화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만경내수면어업계(어업계장 최정열)가 지난 3일 능제저수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업계원들이 소유 배 2척을 동원해 수변가 생활쓰레기 및 잡목 수거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만경읍 능제근린공원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능제저수지 수변부에 떠 있던 폐어구 및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 봄맞이 나들이를 나온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최정열 어업계장은 "능제저수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민·관 힘모아 복지위기가정에 새 희망 전달

###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채움놀, 장애 있는 독거가구 생활 쓰레기 치워

정읍시가 장애가 있는 독거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봉사단체와 손잡고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위기가정에 새 희망을 전달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단장 백지원)은 지난 5일 민간 자원봉사단체 '채움놀'(회장 백낙중)과 연계해 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복지위기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지원이 시급한 가정에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자리였다.

지원 대상 가구는 장애가 있는 독거가구로, 거동이 어려워 집안 곳곳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특히 쌓인 쓰레기로 인해 건강 악화는 물론 화재 위험까지 높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봉사자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약 5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단순한 청소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해당 가구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화장실 보수, 가스레인지 등 필수 생활용품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13년째 운영 중인 정읍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체감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백지원 단장은 "이번 활동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청춘버스' 재능기부 활동 펼쳐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지난 4일 무주군 적상면에서 개최된 '2025 왕진·청춘버스' 행사에 참여해 미용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지인병원, 전북대, 전주대, 전주지전대, 한국전력공사, KBS전주방송국, 농협 등과 함께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 향상과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 이날 약 300여 명의 주민이 현장을 찾았다.

이에 따르면 '청춘버스'는 왕진버스를 통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연, 심리상담, 환경 개선, 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용건강과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용 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비전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와 직접 만나 전공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의미 있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함양하는 교육 효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7일 오후 5시 25분 KBS 1TV '왕진버스, 청춘이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경찰서, 화물차량 범규위반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 산외파출소(소장 손재국)는 관내 발목장소 및 대형트럭 운영 업소를 방문하여 화물차량 적재물 등 추락 방지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 적재물 추락

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임무를 실은 화물차량은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커 사업주 및 화물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고 앞으로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불량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행복나눔추진위원회, 금동마을 이재민에 온정나눔

정읍행복나눔추진위원회가 산발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성면 금동마을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회원 14명이 함께 구룡경로당을 방문해 이재민 40여 명에게 전복죽과 메로구이, 김치, 명란젓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공했다.

또한, 온열시트, 건강식품, 마스크, 경추목베개, 선풍기, 차, 우유, 백팩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함께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위원회는 광광 명예대회장과 예비대회장 대우스님, 시민교회 라상기 목사, 고문위원장 김희선, 명예위원장 김석우(애향운동본부장), 운영위원장 송운용, 자문위원장 김석주, 먹거리나눔위원장 박소향, 봉사위원장 고재창, 총괄준비위원장 허홍진·이창훈, 홍보위원장 임장훈·이준화, 행정담당장 안미향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봉사단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순창소방서, 농업장교 배전반 클리닝 서비스 실시

순창소방서 7일, 순창군 금과면에 위치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업용 최고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배전반 클리닝 및 화재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활동은 순창소방서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농협중앙회 순창지부, 순창 농축협 조합장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소방서는 현장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인 대상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절연세척제를 활용해 배전반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화재 사전 차단에 나섰다. 해당 점검은 무료로 시범 운영되며, 결과에 따라 배전반 무료점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 진안 마령면, 이불빨래 봉사로 따뜻한 마음 전해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호)는 7일, 대한적십자사 진안 마령봉사회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봄맞이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마령면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3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관내 60가구의 이불과 침구류를 직접 수거 세탁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이불을 봄바람에 건조한 후, 각 가정에 배달까지 완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